

## 창세기(19)

다 같이 창세기 3 장 6 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를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그 날에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주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주더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 dml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시되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아무도 깨달을 자가 없사오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아침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들을 깨닫고 아버지께 나뉠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인간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뺀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바꾸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범죄가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내적으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에서 나온 대부분이 두 사람만 빼고 전부 다 엎드러진 것은 그들이 불평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결국 불평이라는 것은 불신이고 이것이 결국 밖으로 나타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란 것은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바울도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깊으신 뜻에 따라 그 뜻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불평할 때마다 다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집에 가면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착각하고 함부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브가 자기 스스로 입을 벌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마음대로’를 빼고 또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더했을 때 그때 사탄은 ‘반드시 죽지는 아니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빼고 ‘마음대로’를 빼고 ‘만지지 말라’를 더하고, 그 다음 ‘정녕 죽으리라’를 ‘혹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삭제와 추가와 결국 변개! 하나님의 한 마디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바꿨을 때 이렇게 인류가 비참하게 되었는데, 성경이 지금 3 만 수천 여군데가 빠지고 더해지고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사탄이 성경 말씀은 비과학적이고 표준 교과서나 참고서 정도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이 꼬임에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란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하고 숨긴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셨지 절대로 사람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란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이것이 바로 철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신약의 원조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빼먹으니까, 스스로 말씀을 더하니까, 사탄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자신을 가지고 한 행동이 뭐니까? 쳐다본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쳐다봄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란 사람은요. 바쁘게 전쟁하고 사울이란 사람을 피해 다닐 때는 내 혼이 주를 기다린다면 하나님만 쳐다보던 사람이었는데, 편안하게 되니까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쳐다봤지요? 누군가를 괜히 쳐다봤어요. 요즘 미국이란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쳐다보지 말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쳐다보게 합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도 엄청난 음란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명한 이벤젤리스트들이 창녀촌에 가지를 았나. 이것이 뭐니까? 쳐다봐서 그런 겁니다. 쳐다봐서. “아이, 육신은 이제 썩은 것이니까 괜찮아.” 하며 사탄이 속이는 거죠. 어차피 썩어 무덤에 갈 것이니까 하며 사탄은 속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에서 망신을 당한 롯도 쳐다보니까 당시 소돔 땅은 멸망하기 전이었으니 물이 가득했지요. 그래서 나 저기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욕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따라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옛날 바로왕이나 아비멜렉 같은 사람도 이삭의 부인과 아브람의 부인을 쳐다봄으로써 하나님께 혼이 났지요. 지금도 동일한 사탄이기 때문에 쳐다봄으로.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랬죠. 인간의 죄가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탄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돌덩어리로 네가 빵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받았지요. 그 다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라. 또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 것이 되게 하리라고 했죠. 그런데 사탄이 시험할 때 보면 떡이 되게 하라! 모든 나라를 네게 주겠다!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항상 긍정적인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요즘에 이런 긍정적인 방법을 외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된다 된다 하면 된다는 것은 세상 무당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라 하라 된다 된다 하는 이 긍정적인 방식이 교회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구호를 외칩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는 것이죠. 절대 안 됩니다. 욕신적으로 혼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잠깐 일회 반창고 밖에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이것을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 장 14 절에 보면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담은 절대 속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절대 속은 것이 아니라 이브가 속았고 아담은 할 수 없이 이브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이브가 속고 있을 때 아담은 그 자리에 없었지요. 그리고 아담은 이브가 나무열매를 주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여인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아담은 이브를 위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담이 이브를 죽도록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 장 14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지요. “아담 이후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했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였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패턴이 같은 겁니다. 여기서 모형이라는 것은 아담이 자기가 속은 것이 아닌데도 결국 아내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고린도후서 5 장 마지막 절인 21 절을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의를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는 것이지요.

아담이 이 땅에 의가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작정되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알게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을 함부로 얘기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 사람 이상한 말을 한다.” 그렇게 반응하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실 자의 모델이란 것은 아담이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브를 만들 때 이미 한번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열매를 받아먹고 또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육적으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아담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형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2000 년 전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브 같은 우리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통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으신 고통들은 지금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다 포함하고 감안해서 받은 고통이므로 결국 우리가 주님을 죽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